

## 전동차 전장품 전문 생산업체 (주)우진산전

한국 전기공업진흥회  
정보조사팀장 이은홍



〈원내는 김영창 사장〉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평온한 마을에 유난히도 깨끗한 한 동의 건물이 시선을 끈다.

소나무와 회양목이 드러선 잔디밭을 중심으로 장미, 철쭉 연산홍이 색색의 조화를 이루는 잘 가꾸어진 주변환경, 들어서는 입구에 (주)우진산전이라는 업체명이 선명하다.

정문을 들어서면 사훈을 새긴 기념석이 보이고 공장이라기 보다는 연구단지 같은 조용한 분위기를 풍긴다.

'74년 서울 면목동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종업원 6명으로 우진전자공업사로 출발하여 현재는 대지면적 7,500m<sup>2</sup>, 종업원 273명, 자본금 102억, 460억원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철도차량 부품의 선두주자로 우뚝선 (주)우진산전

일반인이 전문 제조업체의 이름을 접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동차 전장품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진산전을 모를리 없을 정도로 기술경쟁력에서는 소문난 중견기업이며, 「전동차 1대의 부품 가운데 30% 가량을 저희 우진산전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김영창 사장……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와 전기와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11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엘리베이터와 전화교환기용 권선형 저항기의 아이টে姆으로 출발하였으나, 2년 동안은 매출다운 매출이 없어 「불광동에서 면목동까지 걸어서 출근하던 일」, 「운영자금을 연구개발비로 다 써버려 사채 시장에서 급전을 끌어다 쓰던일」 들을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무척 힘들었다며 회상하는 김영창 사장……



(’78년 최초로 자체 설계한 “스트립 저항 성형기”를 설명하고 있는 김사장)

다행히도, 그 어려웠던 속에서 ’75년 금성엘리베이터(현 LG산전)와 6백만원 수주를 시작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김영창 사장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저항기류가 전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00%의 수입에 의존하던 전동차용 주저항기를 ’78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철도차량전문 부품업체로 탈 바꿈을 한 것이다.

우진산전의 주력제품인 열차 구동장치, 열차보

조전원장치, 열차 정보장치 등은 전동차를 달리게 하고 안전하게 세우며 시험 가동하는 장비들로 전기관련 핵심부품 200여종의 다양한 철도차량 전장품들로 중소기업이 손대기는 어려운 첨단 제품들이다.

이처럼 우진산전이 철도차량 관련 제품에 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철도차량 완제품을 생산하는 현대 대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과 품질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속 성장과 중소기업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대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설립 후 줄곧 기술 제일주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기술력 없이는 대기업과의 대등한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매출액의 10%를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을 야간 대학원에 보내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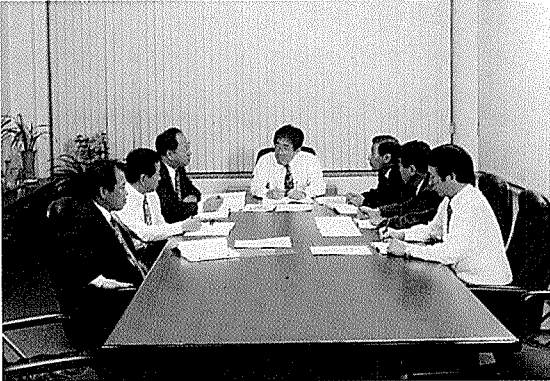
또한, 세계시장 진출과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등을 위해서 일본 동경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로 ’85년부터 4차례나 『무역의 날』 수상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영창 사장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영창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무실과 공장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으로 꾸미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급여, 인사제도 또한 단일 호봉제를 도입하여 사무직과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간의 초봉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대신 직무 능력에 따라 급여를 줌

으로써 학력 차이에서 오는 폐해나 갈등을 해소하는 등 일찌감치 신지식인 등용제도를 실현한 것이다.



〈김영창 사장이 간부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인사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96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직원들의 불만이나 불평없이 이끌어 온 것은 김영창 사장의 11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얻은 노하우의 결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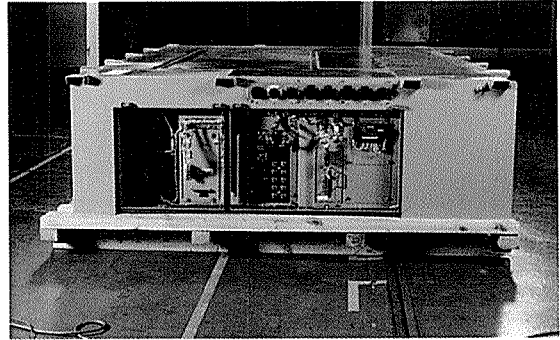
또한, 직원들의 애사심,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픈 창고제를 도입한 것도 특색있는 경영방침 중의 하나이다.

현장 A/S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복잡한 결재라인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자신이 책임감을 갖고 판단한다면 아무리 고가의 부품일지라도 곧장 고객에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진산전의 조직은 명령과 통제로 운영되던 구시대적인 경영방침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개개인 실무자의 의사결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개개인의 의사와 사고가 존중되는 만큼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너무나 각별하다.

첨단제품의 독자개발과 품질의 향상, 그리고 가격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영창 사장.



〈전동차의 핵심부품인 "열차 구동장치"〉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근간에는 사원들에 대한 복지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현재 사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우진복지재단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ISO 인증획득 이후 품질 시스템의 확립으로 업복지재단에서는 사원들의 주택자금 용자뿐 아니라



〈위 정관판은 자체 개발한 최첨단 열차정보장치로 지하철 및 철도청, 독점 납품하고 있다.〉

기숙사, 어학연수실, 독서실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자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사원들 또한 몸담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만큼은 일류가 되는 의지로 IMF의 어려움도 거뜰히 헤쳐 나가고 있었다. 무척리 능률이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품질에 대한 전직원들의 원가 및 책임 의식 또한 전보다 증대되었다고 말하는 김영창 사장.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우진산전의 식구들은 하나 같이 『늘 청년의 각오로 일하겠다』며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김영창 사장은 “영원한 전기인으로 이제는 전기업계 발전과 관련업계와도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각오로 금년부터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부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항상 열린 경영, 진보된 사고로 한발 앞서가는 우진산전이 21C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되는 바가 자못 크다.

#### ❑ 연혁

- 1974. 4 우진전자공업사
- 1975. 10 엘리베이터용 저항기 및 E.M.D 교환기용 저항기 개발
- 1976. OHM사 설립
- 1979. 9 우진 OHM사로 개칭
- 1981. 1 상공부지정 철도차량용품 계열화 업체 선정
- 1988. 10 본사이전
- 1988. 11 부설연구소 설립
- 1990. 4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 개발
- 1991. 4 (주)우진전장 설립
- 1992. 4 (주)우진기전 설립
- 1994. 4 (주)우진산전(법인상호 변경)

- 1995. 4 일본 동경사무소 개설
- 1996. 4 ISO 9001 인증 획득 (BVQI47741)
- 1996. 6 (주)한국SAB WABCO 설립
- 1996. 11 무역의날 “5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1997. 6 (주)우진산전 제2공장 준공  
전동차용 “주변환장치” EM마크획득
- 1997. 7 (주)우진상공 설립
- 1998. 7 벤처기업선정(중소기업청)
- 1999. 1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선정(중소기업청)
- 1999. 3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진흥공단)